



중국식 정원 회원 기념촬영

2010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의 짧지 않은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며 으쓱한 기분으로 고향행 버스를 뒀다. 아마 최연소 협회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올해 31살이 되는 나로써는 이번 연수 참여 여부 때부터 고민이 많았었다. 모두 부모님 뻥 되는 어르신들과 5일간의 여정을 같이 한다는 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좋은 동기와 의지가 있다지만 걸도는 연수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오래 가지 못했다.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회원 분들께서 자식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기특하게 봐주셔서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고 보람된 연수를 보냈다. 물론 아버지(김태근 이사)를 배경에 업고 연수에 나선 터라 나 자신을 어떻게 쉬웠고 쉬어 관심을 끌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 혜택을 많이 봤지만, 또한 젊은 청년이 조경수를 접하고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려는 모습이 기특해서 점수를 따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더욱이 이렇게 여행후기를 적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어 으쓱하기 짝이 없다.



김은익  
변암조경(유)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짧게나마 직장생활을 했다고는 하나 지식이 얇고 경험도 미천한데다 협회행사도 처음 참석한 나로서는 연수후기를 쓴다는 게 역량 미달에 다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신입의 눈으로 젊은 신세대의 눈으로 바라본 연수후기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김승환 부회장님이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우선 이번 연수 개요를 잠시 살펴보면 가족동반 수까지 포함해서 총 41명의 참가한 역대 최대의 규모였다고 한다. 강원도로부터 제주도까지 각지 회원님들이 참석하셨고 70대의 노익장을 과시한 강인, 강숙자 교문님을 비롯해 30대의 젊은 회원층도 4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연수를 기회로 첫 인사를 올린 진창환 사장님 내외, 명천식 사장님 가족분들, 유승환 사장님 등 질적, 양적으로 성공적인 참여율과 이틀간의 현지 농장 및 수목원 연수일정과 약 이틀간의 관광 일정이

결합된 상품으로 따분하지 않은 일정을 소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아무 사고 없이 유쾌하고 성공적인 연수였다 고 생각한다.

우선 오키나와에 대해 순간순간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 1월임에도 불구하고 반팔셔츠를 입게 만드는 아열대성 기후, 일본이었지만 매일 아침 호텔식 조찬은 신희여행 때 먹은 동남아 식당들을 연상시켰고, 도로에서 가이드를 담당하게 했던 느리게 운전하는 운전기사님은 가이드 입에서 중국의 만만디 문화까지 나오게 만들고, 퓨전 철판 스테이크, 오키나와식 소바, 밤새 이착륙하던 미공군 비행기들 생각한다.

오키나와에 대해 정보를 얻기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검색을 권장하나, 간단한 기후, 역사, 문화 등을 가이드를 통해 들어서인지 관광의 재미도 한껏 더해준 것 같다. 일본 본토보다는 대만에 더욱 인접한 지리적 영향으로 아열대성 기후를 띠고 그에 따라 음식의 성격이나 그곳한 사람들의 성격들, 류큐왕국 시절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곳곳에 남아있는 중국의 모습이나 만만디 문화, 2차 세계대전 일본·미국간의 최후의 격전지였고 아직도 그때 체결된 조약으로 40%의 육박하는 미군용지와 5만 여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일본·중국의 세 국가가 숨쉬는 오키나와, 짧은 일정이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장면장면들이 이들 기후, 역사·문화의 모습이 반영된 모습이라 생각하니 재미있고 웬지 모를 뿌듯함 이랄까?, 작각일 수도 있으나 그 지역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연수 1일째, 현지도착에서 오키나와 월드를 관광하고 호텔체크인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고 본격적인 연수에 들어서는 2일째,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간 곳은 온나손 나께지에 있는 암바루 녹화목 생산조합이다. 정확한 농장개요를 잘 모르보니 로션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으나, 솔직히 기대치보단 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족스럽진 못했다. 생각보다 작았던 규모나 일본 특유의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본의 선진문화를 잔뜩 기대하고 온 나로서는 기대치가 좀 높았나 보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85% 정도의 정부지원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간



나하시 전경

사잔비치호텔 전경



호텔에서 바라본 태평양 전경



오키나와 시내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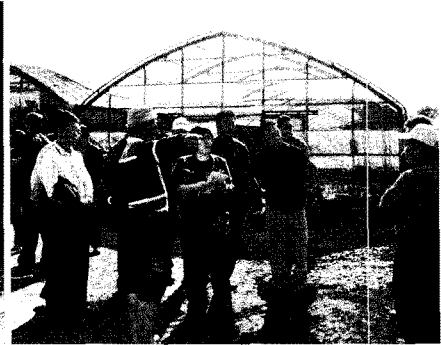




옥천민속촌 광경



옥천동굴 광경



우에다 조합장으로부터의 설명광경

다는 말과, 간단했지만 포트에 흙을 담기 편하게 짠 틀과, 발가락 장화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묘한 신발 등이 기억이 난다.

회원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말씀하는 걸 귀담아 듣고 다녔는데 농장의 전반적인 운영적 측면이나 수목이 어디에 납품되고 시세가 얼마인지 하는 경제적인 면까지 많은 관심을 보였던 열정적이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일까? 전체적인 농장수준이나 우리 회원님들의 열의를 봤을 때 우리나라 조경수 산업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앞으로 가볼 3~4군데의 연수코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님을 맞거나 내세우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수년은 뒤쳐진 시설이나 규모였다. 오키나와라는 지방이어서 일본 전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우리 조경수 산업이 확실히 지난 수십년 안에 비약할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일단 시장이 커졌고, 시설양묘 등 기술적인 측면이나 유통센터 등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한 세대가 바뀌지 않고, 원로 회원님이 여전히 활동할 만큼의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이룩한 것을 건네 들어 알 수 있었다. 선배 회원님들의 숨은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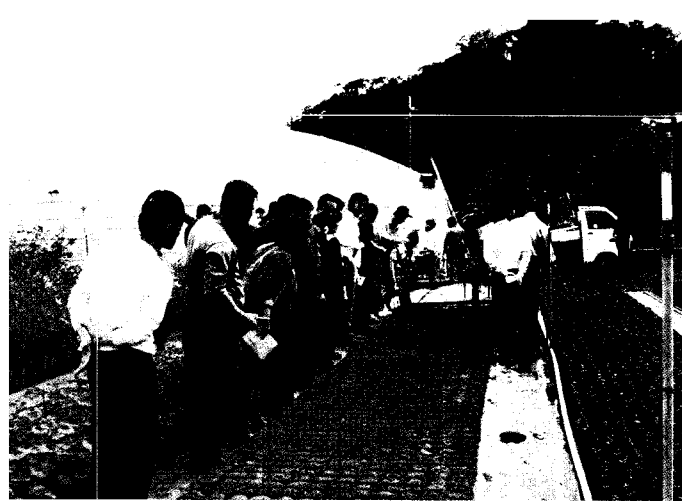
일본의 작업화

이자수 제배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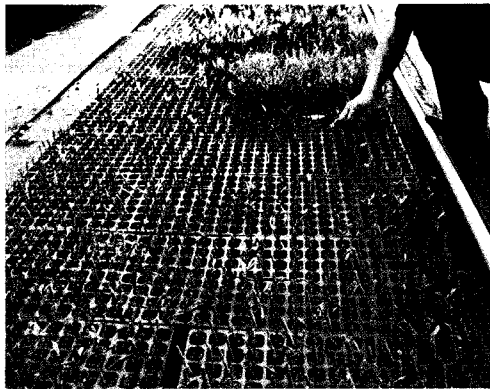


회원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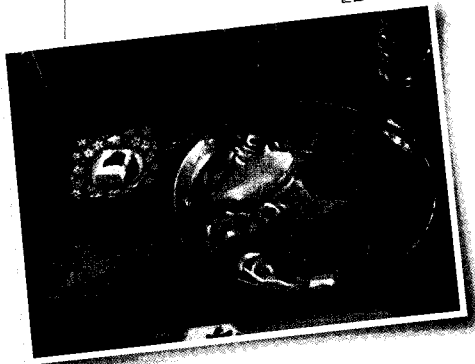


컨테이너 양묘 광경



컨테이너 양묘 광경

일본 전통음식



점심으로 오키나와의 전통 소바를 먹으러 갔다. 수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받은 곳인데, 음식 맛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메밀 소바 같은 면도 아니거니와 맛도 오히려 우동이나 일본식 라면에 가까웠다. 맛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고 여기 정원이 상당히 인상 깊을 정도로 예뻐다. 산 능선을 따라 굽이굽이 건물과 조경이 어울려졌고, 그 속에서 일본 특유의 정갈함과 아기자기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마 오키나와 일정에서 가장 일본스러운 곳이 아니었나 싶다.

오후 일정으로 들린 곳은 동남식물원, 1968년 설립됐고, 50,000m에 2000여종의 열대식물이 식재되었다고 한다. 친절하고 인상 좋은 조경담당 고지마상의 성실한 안내가 떠오른다. 우리나라 장송처럼 길쭉길쭉한 야자수들이 즐비했고, 처음 보는 열대식물들은 우리네 시선을 시종일관 빼앗았다. 대체로 깨끗하게 정리정돈 모습에서 관리자들의 노고와 성의가 보였다. 여기 식물원 수종의 거의 대부분이 수입종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는데, 가깝게는 대만, 동남아 국가에서, 멀리는 호주, 쿠바,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수종들이었다. 실제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수종들도 꽤 있었는데, 문득 우리나라 형편은 어떤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수종에 대해서도 약간 배타적인 성향을 띠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자생하는 수종도 다양하고, 수목 생리상 토종식물, 향토식물이 많이 쓰여져야 하지만, 수입 종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예를 들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열매에



음식점 주변의 수려한 광경

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자생하는 수종도 다양하고, 수목 생리상 토종식물, 향토식물이 많이 쓰여져야 하지만, 수입 종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예를 들어 요즘 각광받고 있는 열매에

동남식물원 고지마상의 설명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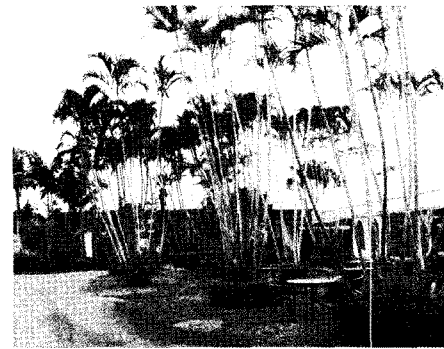
동남식물원 전경

동남식물원 견학광경



강한 수중이나 내한성이 좋은 상록활엽수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수종에서 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생태적으로 안전한 수종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말이다.

또 문득 수형에 대한 한국조경산업의 편애성(?)에서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 옆에 사진의 수목이 자연상태에서 과연 아름다워 보였을까? 다소 혐오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뿌리부분의 모습이 훌륭한 조경수로서 거듭났고, 아름다운 경관창출에 한 몫을 해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 처럼 곧 바로 외간이어야 하며 원추형 내지 우산형처럼 정형적인 조경수목을 선호하는 한국 조경산업에는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조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재, 시설물을 막론하고 다양한 조경자재의 개발이 필요한데, 수목의 다양성이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시 될 것 같다.



열대야자수 생육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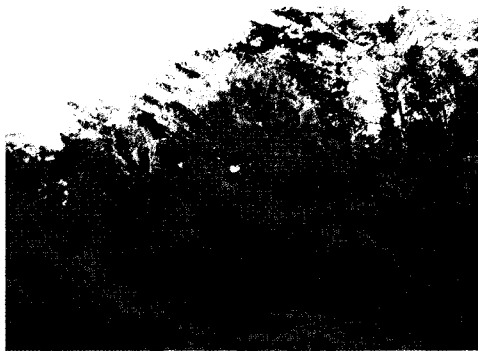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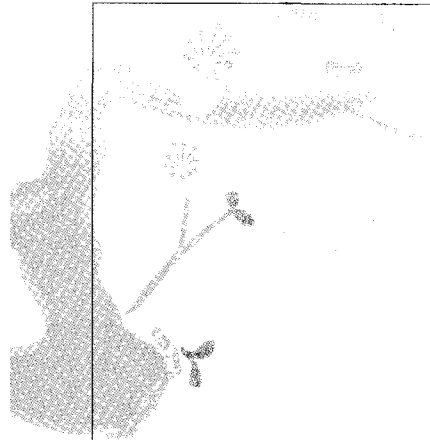
또한 수중에 대한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잠시 생각을 해 <열대 야자수 생육 광경>보았는데, 군식이라는 개념처럼 수형에 따라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수목을 적용하면 좋을 듯 하다. 수형이 좀 못한 소위 B급 수목들도 설계, 시공에서 적절히 사용하여 좋은 경관을 만들지만(옆에 사진처럼 군식한 야자수처럼), 농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B급 수목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버려지는 것이 다반사다. 물론 B급 단가라고 해서 낮은 가격에 종종 납품이 되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가격이 마련되지 못해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다. 나무를 대충 키우자는 말은 아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수목을 재배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분명 좀 더 좋은 경관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농장주들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나무에 대해선 크게 생각하면 에너지, 자원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상품가치가 없어진 나무에 대해선 농장주가 책임이 크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것은 너무 정형화된 수목만을 고집하는 조경 현실이 문제이고, 군식 기법에 외에도 다양한 쓰임이 가능한 설계가 개발·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나아가 조달가에서도 구분과 기준을 둔다면 거래가 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예를 들어, 군식용 단가), 전문기적인 입장은 아니고, 단지 농장을 경영하는 젊은 사장의 입장에서 문득 떠오른 이기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본 것이라고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만 많던 하루 일과가 끝날 즈음에 비가 왔다. 역시나 열대성 소나기 같은 비였다. 방문 일정을 다 마치고 내린 비여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저녁으론 오리온 생맥주를 겸비한 오키나와식 철판 스테이크로 배를 채우고 숙소로 돌아와 내일을 맞을 준비를 했다. 실상 미국인들은 보이지 않고 다른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미군들과 함께 하듯 느낀 느낌을 받았다. (오키나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당인데 미국문화가 묻어있는 음식이 아닌가 싶다.)



일본 오키나와 전통조리 광경

다음날 연수 3일째, 오전은 오키나와 국영기념공원 카이요하쿠 공원 방문이었다. 10여년 전 해양박물관회를 개최했던 공원이었다. 가는 도중 고속



재선충 피해 광경



재선충 피해 고사목 광경

도로변에는 일본의 오키나와의 고유 소나무가 재선충(材線蟲)피해가 만연되어 고사(枯死)되고 있었다. 재선충은 국제적인 수병으로 일단 소나무에 침입되면 방제할 수 없고, 다만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본은 약 100년 전에 들어와서 현재 전국토가 재선충이 만연된 상태로서 국립공원이나 특수 관리지역 외에는 방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신 내병성에 강한 개체를 선발·육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되어 지금 경기도, 강원도, 경남북 등이 발생되어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 원인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10여년 전의 개척지여서 인지 조금은 오래된 느낌을 받았고, 봄에 있을 축제를 준비 중이라 어수선한 분위기도 함께했지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성의껏 안내해준 시마부크 계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수목원을 둘러보는 도중 관심을 끌었던 수종 중에 하나가 염해, 바람에 강하다고 소개한 수목이 있었다. 학명으로 *Casuarina nana*인데 한국에는 없는 수종인 듯했다. 위성류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확히 같은 식물은 아닌듯하다. 모두들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역시나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망그로브라고 불리는 간수에도 사는 수종식물도 기억에 남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섬나라인 일본은 해양성 기후에 맞는 수종이 많을 터인데, 요즘 염해성에 강한 수종에 목말라하는 우리는 일본 어딘가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공식적인 연수일정의 마지막은 히가시촌 농원(가구야히메)이었다. 굽이굽이 골짜기를 거쳐 다다른 곳은 바다를 접하는 산 만행이의 농원, 위치한 곳만큼이나 주인도 시골 아저씨처럼 인상좋은 마타요시 사장님이었다. 장미와 철쭉류, 코스모스 등 화훼류가 많은 농원이었는데, 자기 개인소유로 이런 농원을 갖는 게 사장님의 오랜 꿈이었다고 했다. 다소 빠듯한 일정에 몸도 마음도 다들 조금 지쳐있었다. 생각해보면 숙소와는 꽤나 멀었

시마부크 담당자의 설명광경

수목원 전경

수목원 답사광경





망그로브나무



농장 전경



농장주 마타요시씨의 설명

던 방문지들이었다. 보통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씩 이동시간을 가졌는데 피로가 몰려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좋은 공기 속을 산책하듯 걸어 다녔고, 1월에 보는 코스모스에서 활력을 조금 찾아가는 듯 했다.

육계수로 보이는 수목을 농장주가 눈이 와도 동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에, 국내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너도나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다. 국내에 있는 육계수랑 똑같은 것인지 확실치 않고, 지식이 짧아서 가타부타 말을 잊지 못하겠다. 아무튼 이때 보여준 열의와 농장을 떠나기 전 몇몇 화분들을 사서 국내로 반입하셔서 실험재배하려는 열의들.. 역시 관광이 아니라 연수를 온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내한성이 강한 아말대 수종

아무튼 가구야히메 농원을 마지막으로 공식 연수일정은 마치고 차일 관광일정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세계 문화유산 수리성, 중국식 정원 등 오키나와 대표적인 관광코스를 바쁘게 답사를 하던 중, 문득 어르신들 체력이 보통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우리들도 체력적으로 피곤해지는 4~5일째 날에 건재하신 모습으로 다니시는 것을 보면 말이다. 역시 수목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하신 분들이어서 밝고 건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수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승환 사장님이다. 나의 룸메이트이기도 했다. 느티나무 재배에 대해 넘치는 자신감과 열정을 보여주셨고, 그 만의 노하우와 지식에 점점 공감을 갖게 되었고 많은 영감을 얻었다. 또한 통역이 필요 없는 일본어 실력으로 우리들에게 예정에도 없던 국제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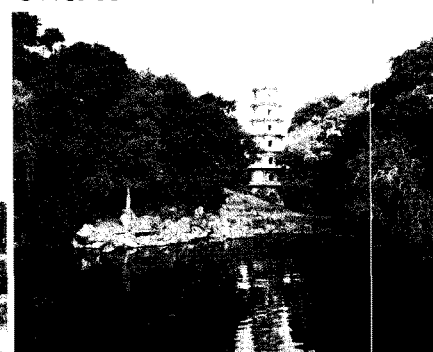
류큐국의 성문 입구



류큐국의 성곽



중국식 정원 광경





의 밤거리를 맛볼 수 있게 도와줬는데, 일본 현지식 선물집에서 맥주도 마시고, 아이쇼핑도 하고, 덕분에 더욱 재미있었던 연수가 되지 않았나 싶다. 특히나 저희 30대들과 놀아주신다고 피곤했을 텐데, 덕분에 저흰 기억에 남는 연수가 되었습니다. 유승환 사장님 사업 번창하시고, 술은 조금 줄이셔서, 다음해에도 건강하게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들 비롯해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 맺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선배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노익장을 과시했던 강인, 강숙자 고문님들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신 것 감사의 말씀과 함께 건강하시길 바라고, 특히 저와 같이 신규활동을 펼치게 된 진창환 사장님 내외분 사업번창 하시길 바라고, 화목한 가족애를 보여주신 명천식 사장님 가족 분께도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계속 같이 하셨던 이정환 형님, 황진아씨, 권상미씨도 좋은 인연 계속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연수의 처음과 끝을 챙겨주신 박소현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적인 견해도 없고 깊이도 없이 두서없이 적은 여행후기입니다. 다만 31살의 젊은 청년이 기회가 닿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을 성의껏 적은 후기라고 봐주십시오. 앞으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해서 선배 회원님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협회와도 좋은 인연을 맺고 싶은 마음으로 후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



수목원 기념촬영